

“마리안느·마가렛 정신 영원히 기억돼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소록도의 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지 못했으나 두 간호사의 헌신과 봉사정신은 영원히 기억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을 맞아 올해 소록도의 두 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동안 노벨평화상 범국민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100만인 서명운동과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 프란치스코 교황 알현 및 오스트리아 전 대통령 접견 등 두 간호사의 헌신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고흥군, (사)마리안느와 마가렛, (사)대한간호협회 등과 함께 사택 등록문화재 지정, 기명우표 발행, 공익방송 등 선양사업을 비롯 나눔연수원 운영, 국내외 홍보 활동 등 사업을 추진해 왔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오스트리아 출신 간호사로 1960년 초부터 2005년까지 40년 이상 고흥 소록도에서 한센인 환자의 재활치료를 도왔으며, 관련 의료시설을 건립하고 영어원과 보육시설을 도입하는 데 기여했다.

오스트리아에서 요양 중인 마리안느는 “평소에도 제가 하는 일 특별한 것은 하나도 없었고, 그저 믿음에 따라 함께 생활했을 뿐이다”며 “노벨평화상 수상 여부에



유림을 순방 중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3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티롤주 인스부르크를 방문, 고흥군 소록도에서 40여 년간 한센병 환자들과 그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다 고향으로 돌아간 마리안느 스티거(85세 왼쪽 두 번째)와 마가렛 피사렉(84세 왼쪽 세 번째) 두 간호사를 만나 위로한 뒤 요양원을 걷고 있다. 두 간호사는 60년대 초 소록도에 찾아와 한센병 퇴치와 한센인 인권향상 등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 활동을 펼쳤다. /전남도 제공

김영록 전남도지사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마가렛’ 노벨평화상 아쉽게 수상 못해”

크게 개의치 않아 왔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두 간호사의 노벨평화상 수상이 우리에게 배운 노고에 조금이나마 감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며 “하지만 수상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분들의 숭고한 인류애와 희생정신의 가치가 빛이 바랜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도 두 분의 헌신을 계속 기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노벨평화상 수상 추진에

각고의 노력을 함께 한 고흥군, (사)대한간호협회, (사)마리안느와 마가렛 및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노벨평화상은 UN 산하 세계식량기구(World Food Programme)에게 돌아갔다. 세계식량기구는 1963년부터 ‘기아제로(Zero)화’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단체로는 25번째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1964년

부터 1984년까지 1억 400만 달러의 지원을 받은 바 있다.

노벨위원회는 세계식량기구의 노벨평화상 선정 이유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식량이 혼란에 맞서는 최고의 백신”이라고 밝혔다.

올해 노벨평화상은 역대 4번째로 많은 318명(개인 211, 단체 107)이 막판까지 치열하게 경쟁해 지난 9일 발표됐다.

/윤규진 기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12일 오후 시청 접견실에서 미하엘 라이펜슈틀(Michael Reiffenstuel) 신임 주한 독일대사를 접견하고 한독상호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광주시 제공

이용섭 시장, 미하엘 라이펜슈틀 신임 주한독일대사 접견

경제·문화·인권 등 다양한 분야별 상호 협력방안 논의

라이펜슈틀 대사, 광주-독일 교류·협력 확대 적극 협조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2일 오후 시청 접견실에서 미하엘 라이펜슈틀 신임 주한 독일대사를 접견하고 광주와 독일 간의 경제·문화·인권 등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주한독일대사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슈뢰더 전 독일총리, 아우어 전 독일대사에 이어 광주를 방문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환영한다”며 “경제부터 문화,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주와 독일과의 관계가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독일 폭스바겐의 ‘아우토 5000’ 프로젝트를 벤치마킹 해 새로운 노사 동반성장모델로 성공적으로 추진 중이다”며 “독일로부터 많은 교훈과 경험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국가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연내에 착공하고 빅데이터센

터 구축, 인공지능 인재 양성, 독일기업 SAP코리아 등을 비롯한 40여개 기업과의 업무협약 등 인공지능 4대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광주가 앞장서고 있다”며 “독일과의 더 넓고 깊은 교류로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미하엘 라이펜슈틀 주한독일대사는 “한국은 경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발전했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 인권도 세계에서 유례없이 발전했다는 점에서 한국 민주화의 상징인 광주를 취임 후 첫 지방 일정으로 찾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독일과 광주가 공통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수소에너지 등의 기술은 경쟁하기보다 서로 협력해 연구하고 교류하면 더욱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독일과 광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는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윤규진 기자

남구청, 물품 공유센터 조성 캠페인·공구 등 대여·체협

광주남구(구청장 김병내)는 한 정된 자원을 함께 나눠 쓰는 공유 문화 활성화를 위해 구청 별관동 1층에 물품 공유센터를 조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12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 물품 공유센터 조성 사업이 이달부터 본격화된다. 물품 공유센터가 들어서지는 장소는 구청 별관동 1층 지하 주차장으로, 종합민원실 입구 맞은편에 들어설 예정이다.

남구는 내년 1월 물품 공유센터 오픈을 목표로 조성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물품 공유센터 조성을 위한 설계 작업은 마무리된 상태이며, 11월초부터 공사에 들어간 올해 연말까지 센터 준공을 완료할 방침이다. /윤규진 기자

道, 여수해역 적조주의보 발령... 대응 총력

적조 상황관리 및 초동 방제 위한 협조체계 유지

전라남도가 최근 여수 지역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전라남도는 지난 10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여수시 돌산읍 성두리에서 경남 통영시 수우도 해역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됐다고 밝혔다. 적조주의보는 유해성 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이 ㎖당 100개체 이상일 때 발령된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11일부터 성두리 해역 주변 양식장 등에 대한 수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매일 예찰에 들어갔으며, 적조 상황관리와 특보발령 시 기동대응반 및 방제활동 지원 등을 위해 비상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적조주의보 발령 상황과 양식장 관리요령을 돌산 해역 양식어업인 1

천 333명에게 SMS를 통해 신속히 전파했으며, 전남해양수산과학원도 예찰 활동 강화를 조치했다.

여수시는 액화산소 등 방제장비 가동 및 구제물질인 황토살포를 준비해 적조피가 돌산 해역으로 유입 시 초동 방제에 들어갈 계획이다.

여수지역 해역은 지난 9월 예비주의보 해제 이후 맑은 날씨가 계속되고 수온이 23℃ 내외로 유지돼 적조생물 성장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됐다. 현재 제14호 태풍 ‘찬홈’의 간접 영향에 따른 강풍으로 인해 여수 인근 경남 남해군 상주면·삼동면 해역에서 코클로디니움이 최대 300개체/㎖가 발생돼 적조가 확산중이며, 주변 해역으로 급격한 확산이 우려돼 여수 돌산 일

원이 적조주의보 발령 해역에 포함됐다.

전라남도는 올해 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군에 27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지난 7월부터 적조 준비기간을 운영해 양식어장별 방제장비(9,540개) 및 황토확보(64천톤) 상황을 점검했으며, 해양환경정화선 5척(125톤급)에 대해 적조발생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정비를 마쳤다. 또 가두리 임시대피지(안전해역) 6개소 69ha를 지정했다.

위광환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적조로 인해 어업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초동방제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적조주의보가 내려진 여수 돌산해역 어업인들께서는 산소발생기 가동, 사료 공급 조절 등 양식장 관리요령 준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오 기자

광주시, 맞춤형 비대면 알리지 질환 예방 관리 실시

광주광역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방역 지침과 외출 자제로 아이들의 실내 생활이 많아지면서 유행병 증가가 예상되는 알리지 질환의 예방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천식 아토피 등 알리지 질환은 소아에서 노인까지 전 생애 동안 삶의 질을 훼손하는 질환으로 사전 예방과 꾸준한 관리가 요구된다.

유치원과 학교, 실내 등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소아·청소년기에 적절히 관리되지 않은 알리지 질환은 성인기 중증 알리지 질환으로 이행돼 환자·가족·사회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증가시킨다.

광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아토피·천

식교육정보센터를 전남대학교병원에 위탁 개소해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기존 대면 집합교육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16일부터 2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담당자, 보건소 알리지 질환 담당자를 대상으로 ‘알리지 질환 아카데미’ 교육을 센터홈페이지에서 실시한다.

또한, 알리지 질환에 취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토피마왕을 잡아라’ 인형극 동영상을 개발해 지역 아토피·천식 알리지 질환으로 이행돼 환자·가족·사회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증가시킨다. 광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아토피·천

/김태범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사람이 비우면 자연은 채웁니다

사람의 손길이 멈춘 자리에 나비가 날아들고 새들이 지저귀니.
사람의 발길이 찾아온 자리에 푸른 열매가 자라고 붉은 꽃이 필니.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푸른 세상을 꿈꿉니다.

